『中國學』, 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11
pp.229-255. ISSN : 1229-9618

楊萬里 驛站詩 研究
– 떠남, 머무름의 공간과 심리

李鍾武*

【목 차】

1. 들어가며
2. 떠남, 머무름의 공간 驛站
   1) 익숙한 풍경, 낯선 감정
   2) 자연, 공간, 머무름
   3) 낯선 잠자리, 잠 못 이루는 밤
3. 나오며

【초록】

南宋 시인 楊萬里의 驛站詩는 '공간' 驛站이 만들어 내는 美學的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驛站이라는 공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연적 요소를 인문적 요소와 결합하고, 시인의 심리까지도 이 공간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 또 그의 驛站詩 작품은 詩語의 운용이나 詩材 선택 면에서 自然 景物과 驛站 주변의 情景 출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自然'을 중심으로 하고 '征行'을 창작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그의 詩學 견해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驛站'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련 시어를 詩材와 詩題로 사용하고 있는 楊萬里의 소위 驛站詩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떠남과 머무름'의 공간 驛站이 가지는 의미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인 심리를 고찰하였다.

【키워드】 남송, 양만리, 역참시, 공간, 심리, 떠남, 머무름

* 이종무.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 교수 (jongdoll@chu.ac.kr)

1. 들어가며

많은 기록 문헌에 따르면, 宋代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라 일컬어진다. 그중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도 평가되는[1] 송대 사회 경제의 발전에는 당연히 物産과 인력의 이동을 위한 交通 체계의 수립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전국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계의 발달과 날로 늘어나는 해외 교역, 사회 경제 생활의 풍요로움에 따라, 송대 사람들은 중국 전역은 물론 더 나아가 국외로까지 왕성한 경제 문화 활동을 확대해 갔다.

특히 개국 이후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송대는 도시중심의 상업문화가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구성원의 유동적 활동 역시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 경제 활동의 활성화 및 문화교류의 확대 추세에 상응하는 사회 구성원의 이 같은 유동적 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이뤄지게 되는데, '旅行' 역시 그러한 활동 중의 하나였다.

여행에는 물질적 풍요와 시간적인 여유를 기반으로 하는 휴식 유람형 여행과 함께, 사회 경제토대와 국가 체계의 안정화에 따라 빈도가 높아지는 목적성 업무형 여행이 있다. 이 중 국가의 命 혹은 황제의 명을 받은 任地로의 이동이나 임무 수행을 위한 長征 같은 떠남과 머무름의 여행을 흔히 '宦遊'라고 일컫는데, 한마디로 관리의 공무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위 '宦遊'는 그 목적성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유람을 위한 여행과 달리 자유롭

---

1) 中國 資本主義의 萌芽가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가는 중국 인문 사회학계에서 오랜 시간 결론을 내지 못한 논쟁 중의 하나이다. 1985년 출판된 許滌新·吳承明 主編의 『中國資本主義的萌芽』는 明淸 태동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明淸說 이외에 元代說, 唐中期說, 束世激, 柯昌基, 華山 등이 주창한 宋代說도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고 있다.
漆俠은 『中國經濟史通史·宋代經濟卷』(經濟日報出版社, 1999, p.3)에서 "농업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宋代의 수공업·상업·도시 경제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비교적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사회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封建的 소작 관계가 전국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太湖 유역을 중심으로 한 兩浙 지방에서는 현물과 화폐 형태의 定額 토지세가 출현하였으며, 상품 통화 관계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모든 발전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2, 3세기 동안 유럽 국가들의 발전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하며, 宋代說을 지지하였다. 董立章은 「略論中國資本主義萌芽于宋」(『華南師範大學學報』 2001年 第3期, 2001, p.66-69)에서 漆俠과 뜻을 같이하며, 역사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봉건사회 후기의 농업 노동 생산성의 전례 없는 향상을 기반으로 한 '상품 통화 관계'는 분명 자본주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는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의 맹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 자본주의는 宋代에 발아하여 元代에 요절하였다가 明 중엽에 다시 태동하였다고 총결하였다. 이상의 주장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宋代說'을 채택한다.

기보다는 제한적 경향이 없지 않다. 넓은 면적의 영토를 소유한 중국이라는 지역 특성을 볼 때, 당시의 宦遊는 물리적으로 대부분 긴 시간과 먼 곳으로의 여정으로 이루어지곤 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은 긴 여정의 장면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정 중 거쳤던 매 지역사회의 모습과 다양한 활동을 기록 문헌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급속화 되어 각종 사회활동이 급증했던 송대 같은 경우에는 官吏들의 왕래를 기록한 여행 기록 문헌의 수량이나 질이 前代를 훨씬 초월하여 보존되고 있기도 하다.

학계는 그동안 송대의 여행 기록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地理, 交通, 經濟, 社會, 文化, 風俗 등 각 방면에서의 학술 가치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2] 실제 송대 여행 기록에 대한 고찰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변혁기에 공무 여행의 면모를 현시점에서 재현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宦遊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사회제도 운용의 典型性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이 공무 여행이 국가가 명한 파견위탁인 만큼 관리들의 출장 편리를 위한 교통 이동 수단이나 여정 중 숙박이나 기본적 의식주의 제공 상태와 운영 형태, 숙박 및 교통기구의 분포와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 문헌 중 상당수가 당시 사회활동의 주요 계층인 文人 士大夫가 주도했던 '宦遊'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대 사람들의 문화, 문학 활동과 당시 풍습을 '문인'과 여행'의 접점에서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공적 여행과 관련된 문인 사대부의 시가 작품에 관한 직접적 연구 역시 충분치 않다. 여러 기록 문헌 중 당사자가 宦遊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 또 그 감회를 시가로 적은 소위 '宦遊詩'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 부족하다.

北宋을 계승한 宋朝의 두 번째 시대 南宋은 臨安을 중심으로 150여 년의 講和와 敗戰의 굴욕적 시간을 이어갔으며,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문인들은 反金의 울분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아래에서 일상적 삶에 머리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가를 자기 몸과 하나로 일치시켰던 理學的 사고를 저변에 깔고 있던 문인 사대부는 불안한 남송의 안위에도 국가와 황제의 명을 거스르지 않고 먼 길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남송의 문인 楊萬里도 그중의 한 명이었다.

당시 다른 문인 사대부와 똑같이, 먼 지방으로의 여행 즉 宦遊가 많았던 양만리(1127-1206)는 황제 명의 수행이나 任地 파견 등으로 타지에서의 숙박이 잦았다. 양만

2) 관련 선행연구로는 陳百華의 「范成大三錄之南宋社會硏究」(華中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趙維平의 「從南宋文人出行記看南宋出行文化」(『青海社會科學』, 2009.05.), 黃純艶의 「宋代官員的公務旅行——以歐陽修『于役志』爲中心」(『中國社會經濟史硏究』, 2012.03.), 阮怡의 「宋代域外行記的奉使交聘文化」(『中華文化論壇』, 2016.05)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리의 宦遊詩 작품 중에 여정의 '머무름'과 '숙박'을 의미하는 '宿'자가 詩題로 사용된 작품이 모두 129편이나 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宦遊의 여정과 감회를 적은 그의 宦遊詩 작품 중, 특히 宦遊의 여정 속에 거쳐 갔던 驛站'[3] 범주에 속하는 '館驛(驛館)'[4], '鋪', '亭'[5], 野店[6] 등을 詩材나 詩題로 사용한 작품에 주목한다. 양만리 시 작품 중 '驛'을 詩題로 사용하는 작품은 19題 30首에 이르며, 驛站 관련 다른 시어들인 '鋪', '亭', '店'을 시제로 사용하는 작품은 각각 11題 13首, 23題 24首, 66題 80首로, 역참 관련 작품은 총 150여 수에 달한다.[7]

이에 본 연구는 양만리의 宦遊詩 중 '驛站'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련 시어를 詩材와 詩題로 사용하고 있는 소위 驛站詩[8] 작품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宦遊의 여정 중 '떠남과 머무름'의 공간 驛站이 가지는 의미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인 심리를 고찰하고자 한다.[9]

---

3) '驛站' 제도는 戰國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관청에서 공문 전달과 官員, 驛使가 왕래하며 투숙하고 말을 바꾸기 위해 설치한 통신기구이다. 큰길에는 30리마다 驛 1개소를 설치하였다. 漢代 때, 긴급한 군사 상황을 전하며 京都인 長安을 축으로 하여, 전국으로 통하는 12개의 주요 驛道가 설치되었다. 장안에서 商州를 거치는 '武關道'는 주요 驛路('郵驛'이라고도 함) 중 하나이다. 唐代에는 郵驛이 전례 없이 발전하여 동서남북의 4대 간선 驛路가 개설되었다. 주요 간선 驛路는 10개 노선이며, 商州는 山南東道에 속해 荆州와 鄂州를 연결하는 고대 간선 驛路이다. 京都인 長安에서부터 商州를 걸쳐 襄陽까지 모두 합해 驛站 23곳의 역참을 설치하였다.

4) 館驛에서 '驛'의 의미는 단순하고 명확하여, 사람들은 한눈에 도로 위의 驛站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館'은 驛路에 위치한 閑居와 驛傳 등급의 장소로서, '驛'과 마찬가지로 짐을 기다리고 官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官營 교통기구이다.

5) '短亭'은 5里마다 설치한 驛站, '長亭'은 10里마다 설치한 驛站을 가리킨다.

6) 野店이나 茅店에 머물며 지은 시 80여 편도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한다.

7)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楊萬里의 시가 작품은 『全宋詩』(北京大學出版社, 1998)에 수록된 작품을 기본대상으로 하였으며, 欽定四庫全書本 『誠齋集』과 辛更儒가 箋校한 『楊萬里集箋校』(中華書局, 2007.)를 底本으로 하였다. 이외에 '中國國家數字圖書館 www.nlc.cn 등 디지털 시스템을 검색 및 분석 수단으로 하였다.

8)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驛站詩'라는 명칭은 시가 작품 중 驛站 범주에 속하는 '館驛(驛館)', '鋪', '亭', 野店 등을 詩材나 詩題로 사용한 시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驛站詩'라는 명칭은 비록 中國古典詩歌硏究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연구 대상 및 범위의 명확성과 연구 주제의 전문화를 위해, 주관적으로 사용한다.

9) 각종 DB에서 키워드를 활용하여 확인한 선행연구 중 '驛站詩'에 관한 연구는 CNKI에 2편(학위논문 1편 포함)만이 존재하고, 국내 DBpia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CNKI에는 '館驛(驛館)'의 키워드로 활용하면 歷史學, 文學, 社會學 등 분야에서 368편의 연구성과(학위논문 58편 포함)가 있으며, 국내 DBpia에는 동일 키워드로 歷史學과 漢文學 분야에 11편의 연구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宦遊' 키워드로 확인한 선행연구는 CNKI에 211편의 연구성과(학위논문 56편 포함)가 있고, 국내 DBpia에서는 漢文學분야에서 3편만을 찾을 수 있었다. '楊萬里' 키워드로 확인한 선행연구는 CNKI에 2,231편의 연구성과(학위논문 96편 포함)가 있고, '誠齋'는 704편의 연구성과(학위논문 177편 포함)가 있다. 국내 DBpia에는 '양만리' 키워드로 22편의 연구성과(학위논문 1편 포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楊萬里의 宦遊詩나 驛站詩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다.

2. 떠남과 머무름의 공간 驛站

중앙정부의 명령 전달과 공적 임무를 띤 여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한 驛站은 시대를 거치며 많은 제도적 변화를 한다. 특히 驛站에 설치된 '館驛'(혹은 驛館)은 왕래하는 官員들이나 먼 길을 떠나는 使臣 등에게 교통과 숙식을 제공하던 복합적 기구였다. 이 館驛은 先周 시기부터 길 위에 '廬', '宿' 등을 두고 여행객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었다는 것에서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10]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여행과 관련하여 각 기능으로 세분되어 있던 이 제도는 唐代에 이르러 '驛'과 '館'의 기능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서, '館驛'으로 병칭되었는데, 모두 官에서 운영하는 "행장을 기다리는(以待行李)"는 기구로서 교통수단과 숙식을 제공하였다. 흔히 '驛'은 대로 위에 설치하고 설비의 조건과 환경이 비교적 좋으며 등급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대로 위가 아닌 곳에 설치한 곳은 '館'이라 불렀다(其非通途大路則曰館)."[11]

당시 관리들은 공무 수행을 위해 驛路를 따라 지방까지 황제의 명을 전달하였으며 물리적으로 먼 여정 중 이 館驛에 이르러 숙박하고 새로운 말로 갈아타곤 했다. 唐宋을 거치면서, 본래 공무 여행을 위해 준비된 이 館驛에는 관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文人 士大夫들이 남북을 거쳐 가며 모이게 되었고, 이러한 그들의 모임은 점차 館驛을 특수한 문화전파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변하게 하였다.[12]

예술창작의 과정에서 '공간'의 변화가 창작 주체인 시인의 감성 흐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13]을 고려하면, 송대 문인 사대부가 宦遊의 여정에서 거쳐 갔던 館驛 등으로 대표되는 '특별한' 공간에서 창작된 소위 '驛站詩' 작품은 분명 그 공간만의 특별한 색채와 시적 특성을 머금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의 驛站詩 작품 속에 그려진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심리를 살펴보자.

1) 익숙한 풍경, 낯선 감정

淳熙 15年(1188) 4月 初九, 양만리는 高宗의 配享 문제로 四品의 秘書少監의 관직

---

10) [淸]孫詒讓 撰,『周禮正義』卷25, 中華書局, 1999, p.990: "凡國野之道, 十里有廬, 廬有飮食, 三十里有宿, 宿有路室, 路室有委, 五十里有市, 市有侯館, 侯館有稷."
11) [唐]杜佑,『通典』「職官十五·鄕官」, 欽定四庫全書本.
12) 謝仁敏·劉慧,「唐代館驛場域與詩歌的生産及傳播」,『雲南師範大學學報』, 第50卷第2期, 2018, p.130.
13) 이종무,「宋代 사찰시 속 공간의 상징성과 문인심리」,『中國文化硏究』, 第57輯, 2022, p.2.

에서 筠州로 폄적된다.[14] 이때 그의 나이 62세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나이였으며, 시인으로의 그 만의 시풍인 誠齋體가 거의 완성되어가던 시기였다.

그는 京都를 떠나 淳熙 15年(1188) 5월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의 혼사를 치른 뒤, 9월에 筠州(지금의 江西省 高安市)로 떠나며 지금의 江西省 宜春市에 있는 高岡鋪에 이르게 된다. 高岡鋪 鋪舍에서 지은 이 시는 그가 筠州로 도착했음을 알려준다.

「初入筠州界高岡鋪」(1188年 10月)[15]
千尺霜松夾道周, 서리 낀 높다란 소나무는 길가에 늘어서 있고,
國初涼繖至今留.[16] 건국 초 때 양산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네.
筠州舊是朝天路, 筠州는 이전에 조정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六十年來行信州.[17] 육십여 년 동안은 信州로 다닌다네.

시의 앞 두 구는 筠州 高岡鋪의 '霜松夾道'한 실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뒷 두 구는 筠州에 이르자 문득 떠오르는 옛 시절에 대한 시인의 聯想을 그리고 있는데, 진정 어린 시인의 한탄이 깔린 듯하다. 외세에 밀려 오랜 시간 동안 中原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남방 臨安 구석에 몰려있는 남송의 형세와 폄적길에 오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 시인은 서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올라 가슴이 쓰리다.

시인은 北宋 당시 江西에서 筠州를 지났지만, 남송(1127)이 세워진 뒤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 동안 남송의 수도 臨安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信州(지금의 上饒)로 돌아가야 한다. 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특별한 격정적 시어 없이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본래 '鋪'는 驛站과 驛站 사이에 설치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구인데, 宋代 때는 30리마다 한 개의 驛站을, 10리나 20리마다 한 개의 鋪舍를 두었다. 鋪舍에는 鋪司와 鋪兵을 두었으며, 驛長, 驛卒이라고도 일컬었다. 鋪舍에는 취사실이 설치되어 왕래하는 鋪司와 鋪兵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18]

---

14) [元]脫脫 等, 『宋史』 卷433 「楊萬里傳」, 『二十四史』, 中華書局, 1997, p.12868: "孝宗은 翰林學士 洪邁의 의견을 받아들이어 呂頤浩 등을 高宗의 묘사에 配享하도록 하였다. 楊萬里는 주요 전투의 명장 張浚을 배향하기 위해 힘썼고, 洪邁가 集議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꾸짖으며 '이것이 指鹿爲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질책하였다. 이에 孝宗은 상소를 보고 언짢아하며, '萬里는 朕이 어떤 주인이라 여기는가!'라 이르고, 直秘閣 관직을 삭탈하고 筠州로 내쫓았다."

15)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25, 中書書局, 2007, p.1279.

16) 涼繖은 황제의 거동 때 쓰는 儀仗의 하나로, 日傘 모양으로 생겼다. '陽繖'으로 쓰기도 한다.

17) 信州區는 江西省 上饒市轄區로서 信濃國도 信州라 일컫는다.

18) 元代 때 陝西驛路는 東, 西, 北, 東北, 東南, 西北 및 西南 일곱 개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商州는 東南驛路에 속하며 長安에서 藍田, 越秦嶺에서 商州로, 商南에서 河南으로, 藍田에서 남으로 孝義廳(지금의 柞水縣), 鎭安에서 安康까지 두 노선이 있다. 전 노선에 15개의 驛站을 설

넓은 대로가 아닌 작은 시골에 위치한 高岡鋪는 분명 宦遊의 여정에 있는 문인 관리들에게 소중한 쉼터임이 분명하지만, 지금 시인에게 이 쉼터는 유달리 황량하게 다가선다. 황제 일행이 이곳을 지났음을 확인해주는 儀仗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곳은 어느덧 驛路 위에 있는 작은 쉼터로 전락해 있고, 길가엔 마치 남송의 운명처럼 서리 낀 소나무만 어두커니 서 있다.

宦遊의 과정 중 그의 발걸음이 거치는 국토 곳곳에는 어쩌면 이처럼 전쟁의 상흔이 어린 곳이 수없이 많겠지만, 主戰派로서 시인은 국토 수복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시는 비록 시구 아래에 깔린 시인의 슬픔과 서러움이 여운처럼 잔잔히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애국 시인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불굴의 기세와 끓어오르는 격정은 크게 느껴지지 않은 채, 耳順이 넘은 삶의 시간과도 같이 그저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망과 초탈의 마음이 뒤얽히는 筠州에서의 폄적 생활은 결코 길지 않았다. 淳熙 16年(1189年) 2月, 光宗이 즉위하자마자 양만리는 황제의 부름을 받게 된다. 9月, 그는 운하길을 통해 다시 臨安으로 가는 길에 오른다. 江西 吉水가 고향인 양만리에게 浙江省 金華縣에 위치한 蘭溪는 고향에서 臨安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그의 작품 중 蘭溪를 시어로 사용한 시가 작품이 총 19수를 남길 정도로 이곳에 대한 시인의 애정은 남달랐다.[19]이제 떠남과 머무름의 가운데 익숙한 풍

치하였다. 商洛 경내에는 商 州驛, 商南縣驛, 山陽縣驛, 洛南縣驛, 鎭安縣驛 및 孝義廳驛이 있다.

19) 『楊萬里年譜』(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 上海古籍出版社, 2017)에 따르면, 양만리가 처음으로 蘭溪를 지나간 것은 紹興 24年(1154), 그의 나이 28세 때로, 北京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처음으로 蘭溪의 橫山塔를 보고 지은 律詩 「过金台望橫山塔」에서는 '昨夜愁勤雨, 今朝喜嫩風. 金臺斜岸北, 玉塔正船東. 灘改呈新磧, 山回隱暗風. 蘭溪水亭子, 作意定留儂'이라 하였다. 그의 눈에서 '雨'는 '勤'하고, '風'은 '嫩'하며, '塔'은 '玉' 같았다. 젊은 나이 원대한 포부를 안고 떠난 길, 그는 과거에 급제했고, 贛州 司户參軍에 除授되었다.

그는 58세에 吏部 員外郎으로 제수되어 다시 蘭溪를 지나게 되었다. 「過橫山塔下」에서 '隔岸山迎我, 沿江柳拜人. 日搖秋水面, 波閃白龍麟. 不遺船迷路, 俱從塔問津. 一生將玉鏡, 千古照金身'라고 하였다. 이때의 '塔'은 다시 한번 금빛을 번쩍이며 그 인생의 지표가 되었다.

하지만 4년 후, 62세의 양만리는 洪邁가 太廟의 高宗 配享에 관한 일을 上疏하여 질책하다 江西로 貶謫되었다. 그는 이때 「橫山塔」시에서 '相識橫山塔, 于今十數年. 孤標立絶頂, 禿影照淸川. 寂寞無香火, 將迎幾舫船. 吾衰豈重過, 珍重塔塔中仙'이라 하였다. 이때의 '橫山塔'은 그의 인생의 외로움을 대신해주었다.

이제 6년이 지난 1189年 9月, 孝宗에 의해 貶謫된 뒤, 그의 학생이기도 했던 光宗이 즉위하자, 양만리는 다시 京都로 불려 秘書監으로 제수되었는데, 처음 이곳을 떠나 다시 6년 만에 다시 京都로 불려 오자,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하여, 「過橫山塔下」 七言絶句를 읊었다. '육 년에 세 번이나 蘭溪를 지나가는데, 늘 늦봄 초여름 때구나. 橫山 산 위의 탑이 가장 고마우니, 동으로 가는 사람 맞이하고, 서로 가는 사람 배웅해주네(六年三度過蘭溪, 總是殘春首夏時. 最感橫山山上塔, 迎人東去送人西.)' 京都를 떠나며 늘 지나쳤지만, 貶謫에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 이번 길에서 만나는 橫山塔은 더욱 반갑기만 하다. 6년 만에 만나는 橫山塔은 마치 고향의 벗을 만난 듯, 시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마치 그와 동병상련하듯, 이 탑을 볼 때마다 그는 친근함이 샘솟는다. 지난 6년의 긴 세월 동안 매번 이곳에 서서 맨 처음 그를 맞이하고 또 마지

경이 되어버린 이곳 水驛에서 시인은 그 감회를 적는다.

「宿蘭溪水驛前三首 其一」(1189年 9月)[20]

繫纜蘭溪岸,	蘭溪岸에 닻줄 메어 놓고,
開襟柳驛窗.	버드나무 驛窗에 가슴이 트이네.
人爭趨夜市,	사람들은 앞다퉈 야시장으로 향하고,
月自浴秋江.	달은 홀로 가을 강에서 목욕하네.
燈火疎還密,	등불은 밝았다 흐렸다 하고,
帆檣隻更雙.	돛대는 외돛대인 듯, 쌍돛대인 듯.
平生經此縣,	평생 이 縣을 지나갔지만,
今夕駐孤幢.	오늘 밤엔 외로운 장막에 머무네.

이곳 蘭溪는 臨安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다 험한 여울을 지나 江岸에 도착한 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송대 館驛은 설치 장소에 따라 '陸驛', '水驛'으로 나누는데, 대로 위에 세워졌던 館驛은 陸驛이고, 남방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흐름을 따라 江岸에 세워진 것은 水驛이다. 이 水驛에는 관리의 왕래와 문서 전달의 편리를 위해 선박편이 준비되어 있었다.

시의 '人爭趨夜市'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시의 배경 공간이 되는 蘭溪는 송대 들어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곳으로, 남송 당시 水驛이 설치된 곳이다.[21] 이곳은 浙江省 중서부 錢塘江 중류 金衢 분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晥南의 徽州, 贛北의 景德鎭, 江南의 蘇州와 浙江의 杭州 등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도시들과 모두 수로 교통으로 이어져 있어,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히 일어났던 교통요충지이기도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대 館驛 등의 官道 교통망은 각종 물류 유통과 경제교류 네트워크를 겹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대 西州는 내지와 서북과의 교통요충지로서, 唐代에는 이곳에는 교통기구의 하나인 長行坊 館驛을 두어, 관리와 상인들이 이곳에서 서북의 馬匹이나 內地의 양식, 비단 자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館驛을 거쳐 운송되던 물품에는 주로 관용 물자와 瓷器, 비단, 蜀錦, 차 등 대량의 민간물자 등이 있

막까지 등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배웅하였다. 이처럼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서서 그를 안아주고 아낌없이 마음을 베풀어 준 橫山塔은 그에게는 아마 自然 景物 이상이었을 것이다.

20)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楊萬里集箋校』卷26, 中書書局, 2007, p.1358.

21)『太平廣記』卷243「何明遠」의 내용에 따르면, 唐 定州의 富豪 何明遠은 官府의 세 驛을 주관하였다. 驛 주변에 店을 세워서 상인들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에는 오백 장의 베를 짤 수 있는 베틀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城鎭은 宋明 이래 상업과 수공업이 아주 발달하였는데, 蘭溪는 그들과 모두 水路 교통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蘭溪는 南宋 중 수로 驛站을 가진 곳이 되었다.

었는데, 館驛을 통해 전국까지 교역이 이루어졌다. 館驛의 체계는 중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 전국에서 징수된 세금 대부분이 館驛을 통해 京都로 보내졌을 정도였다.[22]

水驛 蘭溪을 창작 배경으로 한 시의 首聯에서는 수로를 따라 도착한 익숙한 이곳에 대한 시인의 편안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 매번 지나면서 만났던 익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貶謫地를 떠나 京都로 복귀하는 현재의 시간이 비로소 실감이 났기 때문인지, 시인은 '가슴을 틔우며[開襟]' 안도의 마음을 가진다. 頷聯에서부터는 驛窗을 통해 시인이 내려다보는 蘭溪[23] 水驛의 번화함을 그려내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이곳은 지금도 '夜市'가 열려 떠들썩하고, 주변의 상가와 집들의 등불은 깜박이듯 어둡고, 시인이 타고 온 작은 배의 돛대는 江岸 저쪽에 멀찍이 보인다.

시는 자연스럽고 담담한 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시인은 頷聯의 '爭'과 '自'로써 떠들썩한 異鄕의 공간 속에 홀로 있는 시인의 고독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대비시키고 있다. 이번 여정의 휴식처 水驛에서 도착하여 잠시 심신을 쉬고 있는 시인은 水驛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주변의 등불들과 다투듯 야시장으로 가는 떠들썩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문득 혼자임을 느낀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가을 달 뿐이니, 시인의 적막감은 더욱 크다.

사실 「宿蘭溪水驛前三首 其一」 尾聯에서 '평생 이 縣을 지나갔지만, 오늘 밤은 외로운 장막에 머무네(平生經此縣, 今夕駐孤幢)'라고 말한 것처럼, 본래 익숙한 풍경도 시인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창작의 공간에 따라 홀연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선다. 같은 시제의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보자.

「宿蘭溪水驛前三首 其二」[24]

合眼波吹枕,	눈 감으니 물결은 베갯머리까지 불어오고,
開篷月入船.	차양 걷으니 달은 배 안으로 들어오네.
奇哉一江水,	기이하구나 이 강물은,
寫此二更天.	二更 한밤중에 이 글을 쓰게 하네.
剩欲酣淸賞,	맑은 감상에 흠뻑 취해보려 해도,
翻愁敗醉眠.	근심 걱정으로 취해 잠들 수 없구나.
今宵懷昨夕,	오늘 밤 어제저녁을 생각하며,

22) 黃明建, 「唐代館驛制度及分布特點探析」, 『四川文理學院報』, 第31卷 第6期, 2021, p.111.

23) 北宋 樂史의 『太平寰宇紀』에서는 "酒出蘭溪美"라는 말이 있다. 南宋 周密의 『武林舊事』에서는 "蘭溪酒曰溪春花"라고 언급되었다. 明 徐應秋가 撰한 『玉芝堂談薈』에서도 "蘭溪有溪春酒"라고 말하였다. 이 밖에도 이곳에는 造船業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북송 熙寧 연간에 縣의 동쪽에 銅礦山을 열고 蘭江 변에 조선소를 세우면서 浙江 중부의 造船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24)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26, 中書書局, 2007, p.1359.

雨卧萬峰前.　　빗소리에 누우니 일만 봉우리가 눈앞이네.

이날, 시인은 배를 물가에 대어놓고, 배 위에서 하룻밤을 묵을 준비를 한다. 눈을 감으니, 들리는 것이라곤 배와 강기슭을 치는 물결 소리뿐이고 소리의 여운은 침상 주변으로 조금씩 퍼져만 간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이 같은 자연의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시인이 일어나 배의 차양을 걷으니, 수줍은 달빛만이 오히려 배 안으로 고개를 내민다. 이러한 광경에 시인은 부지불식간에, '기이하구나 이 강물은, 二更 한밤중에 이 글을 쓰게 하네(奇哉一江水, 寫此二更天)'라고 탄식한다.

이 시구에는 通假字가 하나 있는데, '寫'는 '瀉'와 통하여 '퍼붓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시인의 모든 정감을 다 퍼붓게 하는 삼라만상의 모습에 시인이 감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묘한 시어 선택이다.

눈앞의 강물은 한 조각 달빛을 싣고, 교묘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만들며 二更이 넘는 밤중에 유유히 흘러간다. 이러한 시인의 情과 자연의 景은 서로 하나로 호흡하며 시인의 잠을 멀리 쫓아내고, 시인은 모든 정을 다 토로하며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습에 맘껏 취해보고 싶지만, 또 한편 술에 취해도 근심 걱정에 잠들지 못할까 걱정일 따름이다. 오늘 밤은 蘭溪의 배 위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강엔 달빛이 가득하고, 어제저녁은 뭇 봉우리 아래에 머물러 비바람이 산에 가득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분명히 대비되는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시는 앞 네 구에서 경치를 그려내면서, 단지 '물소리'와 '달빛' 두 개의 이미지만을 이용해, 시인이 처해있는 이곳 공간의 고요한 분위기를 완전하게 形象化함으로써, 마치 한 폭의 蘭溪月色圖를 그려낸 듯하다. 특히 이어진 頷聯에서의 '奇哉一江水, 寫此二更天'이라는 찬탄에서는, 詩語 '奇'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마치 독자를 몽롱한 꿈속 仙境으로 이끄는 듯하다.

二更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각인데, 이 시간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일을 마친 뒤 모든 게 평온해져 사람들이 비로서 자기 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같은 옅은 구름 아래 가릴 듯 가리지 않은 초승달이 떠 있는 저녁, 출렁이는 물결 위 작은 배 위에서, 뭇 시인들은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오는 자신의 감회를 글로 옮기곤 하였다.

蘇軾은 술에서 깨어나 자기 내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득 '이경에 술이 깨니 배가 막 출발했네. 외로운 성 돌아보니 창망한 운무 속에 묻혀 있네(二更酒醒船初發. 孤城回望蒼煙合'(「醉落魄·離京口作」詞)[25]라는 詞를 적으며 宦遊의 삶이 주는 권태로

25) [宋]蘇軾, 譚新紅·蕭興國, 王林森 編, 『蘇軾詞全集』, 匯校匯注匯評, 崇文書局, 2015, p.33: 熙寧 6年(1073) 겨울은 蘇軾이 杭州通判에 부임해 있을 시기이다. 蘇軾은 王安石 變法의 반대자로서,

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었고, 唐代 시인 姚合은 달빛 아래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知己이자 벗인 賈島를 그리워하며, '새 무덤은 소나무가 석 자, 텅 빈 섬돌에 二更이 되었네(新墓松三尺, 空階月二更'(「哭賈島二首 其二」)[26]의 시편을 적었다.

이러한 시인들의 모습으로부터 깊은 밤 적막함이 가득할 때, 사람들의 정감은 다시 요동쳐 밝은 달에 근심을 기탁하고 밤바람을 따라 만 리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창작의 영감이 떠오르는 그 '시간'과 시인 처해있는 '공간', 그리고 형상화의 단초인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自然'이 만나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 가슴을 울리는 시는 자연스럽게 붓끝에서 흘러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시가 형상의 근원적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요건 중의 하나로서 시인의 창작행위의 발생지임과 동시에, 시적 정감의 저장소이자 형상화 과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27]

2) 자연, 공간, 머무름

양만리에게 있어서, '자연'은 다른 이의 자연과는 달랐다. 水驛을 지나 金華山을 바라보며 지은 시 작품에서 그는 자연을 대하는 시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넌지시 말하였다.

「下橫山灘頭望金華山」(1189年 9月)[28]

山思江情不負伊, 산천의 마음 그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니,
雨姿晴態總成奇. 비 내리고 개는 모습 늘 기이함을 이루지.
閉門覓句非詩法, 문을 닫아걸고 시구를 찾는 것은 詩法이 아니니,
只是征行自有詩. 먼 길을 떠나기만 하여도 시는 절로 이루어지리라.

시의 앞 두 구는 위험한 물살을 헤치며 배를 저어온 사공의 노고를 위로하는 말인 듯하다. 하지만 정작 시인의 진정한 의도는 강과 산의 마음이 그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擬人化함으로써 '자연'에 살아있는 영혼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자연의 일부인 비 내리는 모습 역시 시인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끊임없는 창작 소재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든 동식물의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

王安石 집권 당시 여러 차례 지방관으로 쫓겨났었는데, 이때는 杭州에서 이미 3년의 임기를 채운 때이다. 杭州에서 임기 3년을 다 채우고, 密州太守로 移任되면서 京口를 떠날 때, 이 詞를 지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26) [唐]姚合, 『姚少監詩集』 卷10, 欽定四庫全書本.

27) 이종무, 「宋代 사찰시 속 공간의 상징성과 문인심리」, 『中國文化硏究』, 第57輯, 2022, p.3.

28)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26, 中書書局, 2007, p.1356.

을 하는 비는 정서적 측면에서 인간 감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까닭에 감성적 울림이 큰 예술가들은 비 내리는 날 사물에 대해 더욱 민감한 감성을 발휘하며, 시인 역시 '비' 그 자체나 '비' 내리는 날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곤 한다.

뒤 두 구 '閉門覓句非詩法, 只是征行自有詩'는 '自然'에 대한 경외적 태도에 걸맞은 창작에 관한 시인 자신의 목소리이다. 앞 구는 이전의 잘못된 詩法에 대한 부정이고, 다음 구는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詩法 주장인데, 그가 부정하는 것은 陳師道 등이 고심하며 힘들게 시를 짓는 방식이다. 북송 黃庭堅 이후 소위 江西詩派는 글귀의 내력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換骨奪胎와 點鐵成金 등 典故에만 고심하여, 시의 맛이 메마르고 떫어졌다고 평해졌다. 이러한 창작 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淳熙 3年 52세 되는 해 양만리도 '자연' 중심으로 시풍이 변화되었다.[29]

葉夢得의 말에 따르면, 陳師道는 매번 산천을 올라 유람하며 창작의 영감을 얻었을 때, 급히 집으로 돌아와 평상에 누워 이불을 덮어쓰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시를 지었다. 타인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심지어 고양이나 개도 집 문밖으로 쫓아내고,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두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黃庭堅은 「病起荆江亭卽事」시에서 '문을 닫아걸고 시구를 찾는 陳師道, 손님을 대하며 붓을 휘두르는 秦觀(閉門覓句陳無己, 對客揮毫秦少游)'이라 하였다. 黃庭堅은 陳師道, 秦觀 두 친구를 그리워하며 조금의 褒貶도 없이 다른 두 사람의 창작방식을 대조적으로 개괄하였다.[30]

사실 '문을 닫아걸고 시구를 찾는' 難澁한 창작을 했던 이는 비단 陳師道에 그치지 않았다. 양만리는 이 시구를 통해 이전 자신의 창작 태도를 반성하며 자연과 만물의 조화에 대한 깨달음으로 水驛을 떠나 다시 강물에 몸을 맡긴 이 宦遊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는 뱃머리에 서서 푸른 산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창작에 대해 고민한다. 이 宦遊의 여정 중 그는 산과 강에 무한한 친근감을 가지고, 비가 내리고 개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은 족히 뱃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 여기었다. 이에 그는 여행을 즐기는 것이 시가 창작의 원천이며, 山水와 田園만이 영감을 일깨우는 중요한 소재라고 여기며, '征行'의 방편을 주장하였다.

'征行'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먼 길을 떠난다'는 의미와 '從軍하여 出征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멀리 길을 떠난다는 면에서는 같은 함의가 있다. 양만리는 이러한 '征行'이 시를 짓는 유일한 창작방식이고,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체험했던 자연의 아

29) 송용준·오태석·이치수, 『宋詩史』, 도서출판 역락, 2004, pp.622-625.

30) [宋]陳師道 撰, 任淵 注, 『後山詩注補箋』 卷首, 中華書局, 1995, p.18: "世言陳無己每登覽得句, 即歸卧一榻, 以被蒙首, 謂之吟榻. 家人知之, 即猫犬皆逐去, 嬰兒稚子亦皆抱持寄鄰家. 徐待其起就筆硯, 即詩已成, 乃敢復常."

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유일한 창작 원천이라 여기었다. 뱃길 도중 보았던 이들 경치 역시 시가 창작에 도움이 된다.

그의 눈에 '江山'은 시의 창작을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강산' 그 자체가 거의 시의 생명 전부이며, 산과 강의 모습, 비 내리는 날과 개는 날의 모습 등을 떠나서는 시가가 없다 라고 생각하였다.[31] 이러한 까닭에 창작은 당연히 서재에서 문을 닫고 시구를 찾아서는 안 되며 당연히 '자연'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양만리가 먼 길을 떠나는 '征行' 만으로 시는 저절로 지어진다고 여긴 까닭은 자연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고, 시인의 섬세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여행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행이란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의 이동은 시인의 정서와 감각, 심리에 분명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異鄕에서의 어떤 장면이 이전 공간에서는 익숙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과정을 통했을 때 낯설거나 새롭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평범한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정에 있는 창작자에게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다.

먼저, 시인의 정서적 측면이다. 고향과 같은 익숙한 공간으로부터의 이탈은 가장 가까운 집단인 가족과의 이별을 말하는 것이기에 시인의 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독과 우울감 등과 같은 감정의 진폭을 크게 한다. 또한 낯선 고장 異鄕의 도착은 자기 보호의 본능으로 인해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나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어,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질감이 심할 경우는 심지어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에게도 반발심이나 격렬한 공격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공간'의 작용이다. 宦遊의 과정에서 익숙함을 낯섦으로 느끼게 하는 데에는 시가 창작의 주체인 시인이 실제 머물고 물리적인 시간까지 부여받는 공간 驛站의 작용이 매우 크다.

여행자로서 매우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도착한 驛站이라는 공간은 창작자인 시인에게 생물학적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안도와 해방의 공간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 감성적 측면에서 볼 때, 宦遊의 여정 동안 시인의 마음에 쌓여 있던 긴장감, 불안감, 우울함 등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이 시인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이다. 이러한 카타르시스가 창작자인 시인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며, 이는 시가 작품의 풍격과도 이어진다. 하지만 익숙함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카타르시스는 필히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곡점 역시 驛站이라는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

31) 周裕鍇, 『宋代詩學通論』, 成都: 巴蜀書社, 1997, pp.130-133.

본래 인간은 자연의 기하학적 패턴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추상적 공간을 만든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느낌, 이미지, 사유를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려 한다.[32] 이러한 '공간'은 그곳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이동과 변화의 생명력을 가지게끔 해주며, 심리적으로는 자유로움을 얻게 해준다. 문학창작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이 주는 의미는 바로 시인의 심리적 자유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심리 공간의 확대에 있다. 많은 시인은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그 공간에 의해 새로운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 내게 되고, 추상적인 심리적 공간을 딛고 서서 구체화된 형상의 날갯짓을 한다.[33]

驛站 공간에 이른 시인은 처음 카타르시스에 이르지만, 이 카타르시스가 지나고 난 뒤 곧바로 뒤를 따라오는 것은 이 驛站이 만드는 새로운 심리 공간이다. 막 정화되었던 긴장감, 불안감, 우울함 등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시인을 엄습하고, 새롭게 조성된 심리 공간에 투영된 공간 驛站과 주변 자연 경물은 이제 시인에게 낯선 풍경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place)는 안전을 의미하며 공간(space)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34] 이전부터 늘 지나다녔던 驛站은 시인에게 이미 장소화된 곳이었기에 시인은 익숙한 이곳으로부터 안도감과 카타르시스를 얻었으며, 곧바로 만들어진 심리 공간은 바로 새로운 '공간(space)'으로서 비록 낯섦을 느끼지만 자유로움을 통해 응축된 창작의 영감이 격동되어 무한한 상상과 연상을 꿈틀거리게 한다.

양만리는 고향인 吉水와 멀지 않은 楊塘(지금의 江西 南昌에 해당하는 隆興府와 撫州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고향 산천에서 느끼는 익숙한 공간에서의 머무름을 경험한다. 비록 이 또한 宦遊의 여정이지만, 그에게 이 머무름은 또 달리 느껴진다.

「宿楊塘店」[35]

吾生行路何時了,	이번 생에 길 위의 삶 언제쯤 끝나려는지
舊館重來身漸老.	옛 驛站에 다시 왔지만 몸은 차츰 늙어가네.
路旁松桂只十年,	길가의 소나무와 계수나무는 겨우 십여 년 지났는데,
如今脩脩舊小小.	지금은 길쭉길쭉 예전엔 작기만 하더니.
昨宵宿處又雲邊,	어젯밤 머물던 곳은 또 구름 근처였으니,

32)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 2011, p.36.
33) 이종무, 「宋代 사찰시 속 공간의 상징성과 문인심리」, 『中國文化研究』, 第57輯, 2022, pp.10-11.
34)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 2011, p.15.
35)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2, 中書書局, 2007, p78: 『永樂大典』 卷10950에는 『撫州府志』를 인용하여, "西北到江西南昌府豐城縣楊塘界六十里"라 하였고, 또 "西路八鋪: 城下·西津·石井·戰坪·樟源·嶺下·坎頭·楊塘"라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면, 楊塘는 隆興府와 撫州가 교차하는 경계에 있다.

來宵還似今宵然. 내일 밤은 또 오늘 밤같이 그러하겠군.
陳迹更待俛仰間, 옛 자취가 되는 것도 또 잠깐 사이가 될 것이니,
有酒不飮要稱賢. 술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니 賢人이라 일컬어야 하리.

孝宗 隆興 元年(1163) 가을, 양만리는 零陵을 떠나 張浚의 추천으로 臨安府教授로 除授되었다. 미처 부임도 하지 않았을 때, 부친의 병으로 인해, 다음 해 고향 吉水로 돌아왔다. 팔월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3년 동안 居喪하며 고향에 머물렀다.[36] 『江湖集』[37]에 실려있는 이 시는 그가 吉水에서 머무는 동안 적은 시이다.

紹興 25年(1155), 贛州司戶參軍으로 처음 관리 생활을 한 이래로, 3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다른 직책을 전전하다 零陵縣丞에 부임했던 때가 紹興 30年(1160)이다. 이때부터 다시 고향에 돌아온 시기는 4년이 지난 1164년으로 관리 생활을 한 지 8년이 되었고, 지난번 고향에 다녀간 지 5년 만의 시간이며[38] 그의 나이는 어느덧 37세가 되었다.

이곳 楊塘店은 贛州司戶參軍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 묵었던 驛站으로서 관리로서 생활을 시작하고 3년이 된 때였다. 당시 천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던 젊은 한 문인은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곳에 이르게 된다. 분명 반갑고 편안한 익숙함의 공간 이곳은 예전 그가 묵었던 그 공간 그대로이지만, 얼마의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이곳에서 시인의 감회는 이전과는 달리 느껴진다.

鄕村의 旅館이나 소규모의 客舍를 의미하는 '店'은 여행자에게 교통과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는 驛站의 작은 단위이다. 그만큼 그의 고향 부근의 楊塘은 넓은 縣이나 郡과는 차원이 다른 작고 소박한 고장이다. 비록 몇 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이 작은 마을에 있는 驛站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시인은 마치 반평생의 세월을 지나 다시 이곳에 온 듯, 그의 감회를 과장되게 토로하고 있다.

首聯 첫 구는 이제 문인에서 관리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8년이 된 이때, 宦遊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둘째 구에서는 '老'로써 물리적 시간의 지난함을 표현하고 있다.

頷聯에서 예전엔 '小小'한 '松桂'가 지금은 '脩脩'하다는 말로써 시간이 흘러갔음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을 넘어온 듯 아득하다. 시인의 이 같은 감성의 과장은 頸聯에 이르러 아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驛站의 '공간'

36) 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 『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17, p85.
37) 楊萬里는 생전에 그의 작품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직접 배열하고 편집하여 9종의 詩文集으로 엮어내었다. 관직과 벼슬길이 바뀌었던 시간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붙여, 4,200 여수의 작품을 『江湖集』(1162-1177, 江西體를 모방한 작품들), 『荆溪集』(1177-1179, 知常州 재임 중), 『西歸集』(1179年 常州를 떠나 서쪽으로 돌아갈 때), 『南海集』(1180-1182), 『朝天集』, 『江西道院集』, 『朝天續集』, 『江東集』, 『退休集』등으로 나눠 엮었다.
38) 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 『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17, p48.

과 묶으면서 여행자로서의 감회로 전환되어 간다.

尾聯의 첫 구는 王羲之 「蘭亭集序」의 "지난번 기뻤던 일도 잠깐 사이에 옛 자취가 되어버리니(向之所欣, 俛仰之間 以爲陳迹)"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후인들이 즐겨 읊조리며 옮겨적던 名句인데, 양만리 또한 종종 이 구를 인용하였다.[39]

시인은 왕희지의 말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마치 긴 시간의 흘러감을 노래하며 인생에 대해 超脫한 듯한 그의 감성은 앞의 聯들을 이어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비록 격정적이지는 않으나, 시인이 배치한 이 聯의 의도는 분명 뚜렷하다.

송대 문인은 자신과 가정, 국가와 천하를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자기 몸을 수양한 뒤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가정을 가지런히 한 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난 뒤 천하를 태평하게 함"[40]를 자기 소임으로 여기고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지금 작은 시골의 驛站에 선 시인 양만리 또한 문인으로서 이 같은 큰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뜻과 이를 서둘러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시의 이와 같은 정취와 시인의 조급함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과장된 표현, 지나친 감성, 뜻을 펼치고자 하는 시인의 조급함, 이 모든 것 또한 幽深한 시골에 있는 작은 驛站의 공간적 이유 때문이다.

宋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唐代 사람들의 좋은 시에는 수자리, 좌천 폄적, 여행, 이별의 시작품이 많은데, 왕왕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끓어오르게 한다"[41]라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수자리', '좌천 폄적', '여행', '이별' 등은 모두 공간 이동을 전제로 하며, 상당수가 驛站을 창작의 장소나 배경으로 하고 있다. '征戍'은 그 자체가 여행의 한 종류이기에 여정 중 驛站을 당연히 거치게 되고, '遷謫' 또한 필히 驛站을 거치게 되며, 그리운 이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역시 驛站이나 驛路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록 그의 신분이나 그의 詩論에 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42], 南宋人으로 여겨지는 嚴羽의 주장은 마치 '閉門覓句非詩法, 只是征行自有詩'

---

39)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31, 中書書局, 2007, p.1587: '남조 천년 이 사람이 있었으니, 봄날 蘭亭의 꽃과 풀을 집어내었네. 잠깐 사이에 이미 옛 자취가 되었지만, 지금에 이르러 이 종이는 오히려 새것 같구나(南朝千載有斯人, 拈出蘭亭花草春. 俛仰之间已陳迹, 至今此紙尚如新.-「跋遠起巖所藏蘭亭帖」)'. 1190年 12月, 양만리는 이 시에서도 왕희지의 명구를 인용하며,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40) [宋]朱熹, 『四書章句集注·大學』(中華書局, 2003), p.4: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平天下."

41) [宋]嚴羽, 郭紹虞 校釋, 『滄浪詩話校釋』 '詩評', 人民文學出版社, 2000, p.198: "唐人好詩, 多是征戍, 遷謫, 行旅, 離別之作, 往往能感動激發人意."

42) 嚴羽가 태어난 해는 대략 1192년에서 1197년 사이로 추정되며, 이때는 韓侂胄가 北伐을 실패한 시기로, 宋이 金에 굴욕적으로 和義를 구하던 때이다. 그가 사망한 해는 대략 1241년에서 1245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元이 宋을 멸망시킨 1279년과는 대략 30여 년의 간격이 있다. 그의 詩論, 특히 그의 시학 주장을 모아놓은 『滄浪詩話』는 중국 詩學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이후 格調派, 性靈派, 神韻派 등 주요 詩派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후세 王夫之, 葉燮, 王

라는 양만리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비록 익숙한 공간이지만 창작자의 심리 공간으로 인하여, 익숙함은 낯섦으로 다가서고, 이는 오히려 시어의 운용을 더욱 과장되게 부추긴 것이다. 공간이 창작활동에 미치는 이 같은 효과는 실제 형상화과정에서는 더욱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3) 낯선 잠자리,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드는 깊은 밤, 어둠과 시간이 주는 적막감은 불현듯 시인의 감각을 깨운다. 시인은 전전반측하던 어느 한순간 시간의 축을 쫓아 몸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든 현재에 대한 자각이든 아니면 과거가 塑造하여 만든 미래이든 관계없이, 시인은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 중 가장 울림이 있는 감성을 건져 올린다.

驛站의 공간은 이곳에 이르러 몸을 내맡기는 여행객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지만, 이 '자유'는 시작점에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심리적 경계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계의 마음은 역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감각의 반응으로 인하여 간혹 더욱 크게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더 많은 시적 형상화의 산물을 만들어 내게 된다.

『宋史』 本傳과 1179년 常州를 떠나 서쪽으로 돌아갈 때까지 양만리의 시 작품을 모아놓은 『西歸集』 序文의 기록에 따르면[43], 양만리는 53세가 되는 1179년 정월에 廣東常平茶鹽에 천거되어, 2월에 인수인계를 끝낸 뒤, 3월 하순에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常州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였다. 그 여정 중 驛路 한 모퉁이에 있는 茅店에 머물며 지은 다음 작품에 출현하는 驛站은 그에게 또 다르게 다가서는 듯하다.

「不寐四首 其四」[44]

初聞一犬兩犬聲, 처음에는 개 한두 마리 울음소리 들리더니,
次第遠近雞都鳴. 다음에는 이곳저곳 닭들이 울어 젖히네.
今夕明朝何日了, 매일 매일 같은 일상 언제쯤 끝나랴,
南村北巷幾人行. 남북의 작은 촌락들을 몇 사람이나 다녔을까.
忽思春雨宿茅店, 띠로 엮은 店舍에 묵으며 봄비에 홀연히 생각에 빠지니,
最苦僕夫催去程. 가장 힘든 건 하인이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네.
是時懶起惜殘睡, 일전엔 일어나기 싫어 남은 잠이 아쉽더니만,

國維 등도 그의 이론적 사고의 기초 위에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학계에서는 張健 등이 嚴羽의 직접 저술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3) 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 『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17, p233.

44)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14, 中書書局, 2007, p706.

如今不眠愁獨醒. 오늘은 잠 못 들고 시름겨워 홀로 깨어있네.

鄉村의 자그마한 객사를 의미하는 茅店은 그 규모로 보면 가장 소박한 역참에 속한다. 반평생을 살면서, 한 곳에서의 임기를 다하고 또 다른 임지로 향하는 시인은 이 작은 驛站에 몸을 뉘며 어떤 생각에 빠질까.

낯선 공간에 머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데는 感覺의 역할이 크다. 어둠이 내려서는 때, 안정된 역참 공간에 있는 시인에게 맨 먼저 찾아오는 감각은 어둠을 인지한 視覺이다. 하지만 이 순간 시각은 그 어둠이 아무리 짙고 아득할지라도 창작의 영감을 울리진 못한다. 그 암흑의 뒤에 깔린 驛站 주변 낡은 촌락에서 흘러나온 개나 닭 소리를 듣는 聽覺과 창문을 넘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觸覺이 오히려 시인의 정신과 영혼을 흔들며 수만 가지 상념을 불러일으키고 창작의 영감을 끌어낸다. 여행자에게는 휴식의 공간이지만, 자연 경물과 호응하는 감각의 영향으로 驛站의 공간은 불현듯 시가 창작의 발생지가 되는 것이다.

본래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驛站(館驛)이 점차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서, 이 공간을 배경으로 문인들의 수많은 驛站詩가 탄생한 것을 볼 때, 驛站詩는 시가 역사에서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驛站의 幽深한 환경은 인간의 연상작용을 쉽게 하며 상상력을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를 적게 되면, 그 필치는 더욱 생동적 形象을 더하게 되고, 경물과 풍격 또한 더욱 변화무쌍해진다.

하지만 생활적인 규칙에 비춰보면 시인은 반드시 驛站(館驛)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만 비로소 詩篇을 구상할 시간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驛站詩에서 묘사된 시간 또한 해 질 무렵, 밤이 깊어 사람들이 조용할 때 또는 새벽 동틀 무렵, 시골 마을에 닭이 울 때쯤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45]

시인의 귓가를 자극하는 개와 닭 우는 소리, 시간은 이미 모든 이들이 잠든 적막한 시간. 비록 이 '시간'과 '감각'은 不眠을 이끌지만, 시인은 '茅店'이라는 고정된 공간 안에서 심적으로 안정된 채,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時空과 感覺의 복합적 결합은 오히려 시에서 묘사된 저녁 정경에 입체감을 부여하면서 더욱 사실적인 意境을 만들게 되고, 시름에 잠긴 시인의 심리 공간을 독자에게 전이시킬 수 있다.

과학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공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45) 李德輝, 『唐宋館驛與文學』, 中書書局, 2019, p.301.

폭풍과 허리케인의 적개심인 야수성에 직면했을 때 집이 지닌 보호와 저항의 가치는 인간적 가치로 전환되어, 집은 인간의 몸이 지닌 물리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를 획득한다.46)

인간에게 있어 집이 이처럼 보호와 저항의 영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의 창작에서 창작행위의 발생지이자 창작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시인의 마음을 안정시켜, 공간 밖 외부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외적 자극으로부터 시인의 감성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공간의 보호 아래 외부 세계의 수많은 움직임과 현상을 관조하고 그로부터 연상하게 하는 심적 여유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 공간 안에 있는 시인은 공간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접속하면서, 스스로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지나간 시간의 단편을 끄집어내거나 외부 세계의 자연 경물과 대화하고 호흡하며,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새로운 심적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한 '공간의 인간적 가치 전환'은 시가 창작에서는 결국 시인이 공간을 매개로 공간과 자연 경물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까닭에 시인은 驛站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驛站詩 작품에서 驛站의 색이 물든 경물을 그려내고, 떠남과 머무름의 정서 속에 전전반측하며 근심하는 한 문인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이 시인 양만리에게 주는 심미 요소의 변화는 낡은 역참을 배경으로 한 다음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宿三里店, 溪聲聒睡終夕」47)

破驛荒村山路邊, 낡아 빠진 驛에 황량한 마을 산길 가,
斜風細雨客燈前.48) 비낀 바람 가랑비에 객잔 등 앞.
子規一夜啼到曉, 밤새 울던 소쩍새 울음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更待溪聲始不眠. 또 시내 소리 기다리다 결국 잠 못 이루네.49)

三里店은 황량하고 낙후된 작은 촌락으로, 이곳 店舍는 산길 가에 있는 시골 驛站

46) Gaston Bachelard 著, 龔卓軍·王靜慧 譯,『空間詩學』, 臺北: 張老師文化出版, 2003, p.116.
47)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楊萬里集箋校』卷34, 中書書局, 2007, p.1763.
48) [唐] 張志和,「漁父詞」: '푸른 삿갓 쓰고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비낀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靑蒻笠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
49)『誠齋集』卷34『江東集』「詠績溪道中牡丹二種」시 뒤,「曉過新安江望紫陽山懷朱元晦」의 앞에,「宿三里店, 溪聲聒睡終夕」제목의 이 시를 볼 수 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이 작품은 양만리가 安徽 績溪에서 남쪽 新安江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 여정 가운데 '三里店'이라는 촌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讀史方輿紀要』卷288 '徽州府績溪縣'에는 "楊之水在縣西, 源出龍捲山, 謂之楊溪"라고 '績溪'의 지리와 주변 지형을 적고 있다.

이다. 촌락 옆에는 작은 냇물이 졸졸 흘러간다. 이곳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은 지금의 安徽省 蕪湖市 南陵縣의 三里店과 완전히 일치한다. 南陵의 三里店은 바로 驛路 옆에 있고, 촌락 앞은 바로 呂山에서 흘러내려온 淮水가 煙墩 방향으로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漳水가 합쳐지는 곳으로, 물소리가 밤낮으로 세게 울리곤 한다. 淮水 위에 세워진 馬橋는 역로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다.

둘째 구 '斜風細雨客燈前'의 묘사는 다른 작품 「中秋無月色, 宿青弋江行新寒」시[50]의 둘째 구 '涼雨淒雲總是愁'의 묘사와 일치하는데, 모두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가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 번째 구에서는 소쩍새 우는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소쩍새는 보통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우는데, 시인은 초가을 시골 촌락의 낡은 역참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불교 사찰이나 민가와 달리, 驛站은 다른 창작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환경을 바꾸면 시가 形象이 바뀌게 되고, 시가의 형상과 구상이 달라지면 시인이 포착하는 심미요소도 달라진다. 이 시에서 시인이 포착한 것은 낡고 초라한 驛站의 모습과 그 속에 투영되는 '홀로 있음'이다.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시인은 시 전체에서 감각을 두드러지게 운용하였다.

첫 구에서는 낡고 작은 驛站과 驛路로써 창작의 배경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있고, 둘째 구에서는 바람으로 대표되는 '청각', 스산하게 내리는 가랑비로 대표되는 '촉각', 어두침침하게 흔들리고 있는 객잔의 燈으로 대표되는 '시각'까지 세 가지 감각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시 공간인 驛站의 황량함과 그 속에 머무는 시인의 쓸쓸함과 홀로 있음을 무겁게 그리고 있다.

이 같은 무거운 意境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깊은 밤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을 소쩍새의 울음이다. 소쩍새의 이 울음은 결국 끊임없이 내리는 가을밤의 가랑비처럼 시인의 불면을 이끌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청각 효과는 시골 촌락 구석 산길 가에 홀로 있는 驛站을 시의 무대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작용하고 있다.

소쩍새의 울음처럼, 驛站이라는 공간에 종종 출현하는 시 속의 청각 효과는 양만리의 다른 驛站詩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宿潮州海陽館, 獨夜不寐 其一」(1181年 12月)[51]

醉來還睡睡還醒,	취하여 잠들고 또 깨어나길 반복하더니,
長是三更夢便驚.	길게 잠들다 三更이 되어 꿈에 놀라 일어나는구나.
細數更聲有何益,	야경소리 세어본들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50)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33, 中書書局, 2007, p.1674.
51)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17, 中書書局, 2007, p.891.

不然作麽到天明. 그렇지 않으면 날 밝을 때까지 뭘 하랴.

淳熙 7年(1180)에서 淳熙 9年(1182)까지, 양만리는 廣東常平茶鹽使·提點刑獄으로 각 지역을 순례하며 많은 宦遊詩 작품을 지었는데, 이 시는 그중 그의 나이 55세 되는 해 潮州 海陽館에 묵으며 지은 작품이다.

潮州 海陽館에 관한 기록은 현재 潮州志에 보존되어 있는데,『永樂大典』卷5343·5345 두 권에 실려있는 것이 가장 이르나, 이미 완전하지 않다. 그중 驛鋪 條에 실린 潮州 여러 館驛 중에는 海陽館의 이름이 모두 없는데, 단지 이 志에서『三陽志』를 인용하여 "州가 閩과 廣으로 가는 대로에는 마차들이 끊이지 않고 왕래했는데, 거의 비는 날이 없었고, 候館과 郵亭이 옛날부터 있었다(州當閩廣孔道, 車蓋憧憧, 殆無虛日, 候館郵亭, 從昔有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 기록에 근거하면, 潮州 海陽館은 潮州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를 갖춘 驛站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淳熙 9年은 양만리가 沈師의 起義를 진압하고, 潮州에서 廣州로 군사를 돌려 돌아가던 해이다.[52]

연일 계속되었던 긴 행군에 시인은 이날도 술의 힘을 빌려,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긴 長征에 지쳐서인지 시인은 잠을 자는 듯 마는 듯 자고 깨기를 반복한다. 좀 길게 잠을 잔 듯 놀라 깨지만 시간은 겨우 三更, 이때부터 시인은 상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느덧 更鼓 소리를 세고 있다.

그가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어쩌면 55세가 될 때까지, 戰場과 官場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宦海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시기 지은「明發陳公徑, 過摩舍那灘石峰下十首 其八」[53]등의 작품에서 시인은 이미 벼슬살이에 염증을 느끼며 歸耕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새벽잠에서 깨어나 상념 속에 빠진 시인의 귓가에 홀연히 울리는 更鼓 소리는 宦海의 일상에 잠긴 시인을 깨우는 듯하다. 보통 잠들지 않을 때, 사람은 '혼자 있고', '의식에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고', '자기 인식이 있는' 세 가지의 필연적 상태를 마

52) 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17, p.253.

53)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楊萬里集箋校』卷16, 中書書局, 2007, p.825: '성안에서 편히 산을 얻었고, 산이 없으면 편히 시를 얻었지. 내가 廣州에 들어온 뒤, 마침내 山水와 작별을 기하게 되었네. 거울이 있어도 감히 보지 못하니, 먼지 묻은 얼굴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배를 띄워 고향으로 돌아가니, 산수는 달리듯 서로 쫓아오네. 물빛은 내 두건을 건드리고, 山色은 내 옷을 물들이네. 배는 장차 한 달을 갈 것이니, 빠름은 원망할지라도 지체함을 원망하진 않으리. 산 위 구름 흘러와 끊이지 않고, 강물에 뜬 달은 하얗게 얼룩도 없구나. 마음을 한껏 열어 둔 채 고향에 접어드니, 하는 말이 자못 비슷하네(城中安得山, 無山安得詩. 我入五羊城, 遂與山水辭. 有鏡不敢覽, 塵面我自知. 解維來歸亭, 山水奔相隨. 水光動我巾, 山色染我衣. 舟行將一月, 恨速不恨遲. 山雲來未已, 江月皎無滓. 開懷放之入, 出語頗似之.)'

주한다. 사람이 이 세 가지 상태에 처해있으면서 무심히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孤獨(Solitude)'이라고 부를 수 있다.[54]이 고독은 외로움과는 같지 않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일 뿐이며, 이는 외로움 속에 달갑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 같은 고독한 상태에서 시인이 마주하는 것은 '소리'와 '공간'이며, 이때 그가 마주하는 경치는 이미 순수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한 화면에 불과하며, 오직 소리로만 만들어 내는 '소리의 경치(音景, Soundscape)'[55]는 시인의 공간 중에 더 넓게 퍼져간다.[56]

시인은 잠 못 드는 새벽 更鼓 소리를 세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소리를 더욱 떨치지 못한다. 이 소리는 어느덧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걸어왔던 길고 긴 驛路를 떠올리게 하고 그 여정 중 묵어갔던 수많은 驛站을 소환하며, 부평초처럼 세상 이곳저곳 떠돌던 宦海의 삶을 소리의 反響 안에 묶어낸다.

시인에게 있어, 새벽 更鼓 소리가 만들어 내는 이 같은 소리의 파노라마는 비록 그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지만, 시인은 또 한순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홀로 남겨진 지금의 고독한 자신을 바라보고 상심하며,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不然作麽到天明聲'].

날이 밝을 때까지 시인에게 남겨진 것은 몸을 기대고 있는 異鄕의 공간 驛站과 귓가를 맴도는 새벽 更鼓 소리뿐이니, 이 순간 시인은 자신만이 세상으로부터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있다는 고독감에 철저히 빠져든다.

3. 나오며

공적 사적인 기록 문헌과 문인 사대부의 문학작품을 통한 중국 고대 여행에 대한 고찰은 객관적으로 당시 사회의 경제적 상황, 지리 현황, 풍속과 인심을 파악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임지로 향하기 위해 고생스럽게 먼 길을 떠났던 문인 사대부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당시 사회 주도 세력으로 활약하던 그들의 삶과 심리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고대 驛站을 거쳐 간 문인 사대부의 여정에 대한 탐

54) Philip Kock 著, 梁永安 譯,『孤獨(Solitude: a philosophical encounter)』, 新北: 立緖文化事業有限公司, 1997, p.21.

55) 이 말은 캐나다의 작곡가 R. Murray Schafer가 처음 제안한 말이다.(R. Murray Schafer,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Originally published: New York: Knopf, 1977 참조)

56) 范寧鵬,「析論楊誠齋詩中的'不寐'與'萬籟'」,『文化境界』, 第2卷 第3期, 國立政治大學外國語文學院跨文化研究中心, 2017, p.76.

구는 이와 관련된 人文學的 遺産을 발굴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 평가될 수 있다.

창작활동의 장소로서 '館驛(驛館)', '鋪', '亭', '店' 등이 특정되고, 그 내용이 驛站 주변의 자연 경물에 대한 묘사나 형상화, 驛站에서의 생활과 그와 관련된 감회를 적은 시가 작품으로 정의되는 驛站詩는 旅行詩의 영역에 속하며 宦遊詩의 일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송의 시인 양만리는 긴 세월 동안 관리로서 봉직하여, 그가 지나온 宦遊의 여정 중 헤아릴 수없이 많은 館驛을 거쳐왔고, 그곳에서 창작한 驛站詩는 현재 전해지는 그의 4천 여수의 작품 중 비록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만리의 시가 창작 경향과 시학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그의 驛站詩 작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양만리의 驛站詩는 詩語의 운용이나 詩材 선택 면에서 자연 경물과 驛站 주변의 情景 출현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自然'을 중심으로 하고 '征行'을 창작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창작에 대한 그의 견해와 일치한다.

둘째, 양만리의 驛站詩는 自然과 관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창작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위 '誠齋體' 라 불리는 양만리의 시가 창작은 창작의 붓끝을 자연으로 바꾼 것에 그 의의가 있다. 宦遊詩의 일부분이기도 한 驛站詩에서 그는 먼저 친근한 시선으로 자연을 대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 경물에 살아있는 인격을 부여하여 擬人化시키고 있다. 그다음 단계에서 그는 자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창작의 근원이라 주장한 '征行'의 견해 또한 이러한 자연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57]

셋째, 양만리의 驛站詩는 작품 속에 '공간' 驛站이 만들어내는 美學的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공간은 창작활동의 한 구성요소로서, 공간의 선정과 변화는 시인의 정서와 직결되고, 창작된 시 작품의 풍격과도 연관된다. 양만리는 공간이 가지는 이러한 미학적 요소를 세심히 찾아내어 그의 작품 속에 충분히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는 驛站이라는 공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연적 요소를 인문적 요소와 결합하고, 나아가 시인의 심리까지도 이 공간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驛站詩 작품에 그려진 시인의 심리는 단면적이기보다 다층적 성격을 띠고 묘사되

57) 張宏生, 『江湖詩派研究』 '江湖詩派成員考', 中華書局, 1995, p.314: 自然에 대한 楊萬里의 이 같은 적극적 창작 태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회적 지위, 활동 시간, 南宋 당시 『江湖前後集』의 작품 수록 상황, 酬唱 상황, 전통 관점 등을 고려할 때, 張宏生은 楊萬里는 江湖詩派의 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고찰 결과를 내놓았다.

고 있으며, 단순한 묘사가 아닌 과거, 현재 등 시간을 넘나드는 입체적 묘사가 주가 되고 있다.

또한 공간 驛站이 만들어 내는 美學的 효과는 自然 景物과 驛站의 情景 표현에 대한 다양하고 생동적인 감각의 운용에서도 두드러진다. 수량적 측면에서도 기타 宦遊詩 작품에 비하여 그 운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일 감각보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많다.

넷째, 양만리의 驛站詩에 그려진 시인의 심리는 그의 다른 작품과 달리 무겁고 어두운 색채를 띤다.

사실 작품 속 무겁고 어두운 심리 묘사는 唐代 驛站詩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당대의 驛站詩는 抒情을 위주로 적는 경향이 많아, 상당수의 작품은 슬픔과 한탄의 심리를 담고 있다. 특히 晩唐의 驛站詩는 경물을 빌어 쓸쓸하고 처량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타향에서의 그리움과 한탄을 그려내는데 탁월하였다. 하지만 송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진솔한 서술과 사물에 대한 섬세한 표현을 주요한 경향으로 하였기에, 작품에 그려진 심리 역시 일반적으로 平淡하게 그려졌다. 양만리의 심리 묘사 또한 대부분 작품에서 송시가 가진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驛站詩 작품에서 묘사된 시인의 심리는 다른 宦遊詩 작품과 달리 시름과 우울, 한탄의 정서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어 있다. 비록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枯淡하고 沈鬱한 정도는 아니지만, 自然스럽고 淸遠한 그의 일반적인 작품 경향과 달리 일부 驛站詩에서는 '孤獨'한 시인의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驛站'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시적 효과라 판단된다.

공무수행을 하는 여행자에게 교통수단과 숙박을 제공하는 공간인 驛站이 문학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은 창작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창작 대상과 창작의 배경, 심리 전이의 매개 등으로 확대되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시적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무한한 詩材를 제공하고 끝없는 聯想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역동적 공간 驛站은 이러한 까닭에 고대 문인 사대부의 문화전파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문인 사대부가 이곳에서 문학창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성취를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간 역참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속 양만리의 고독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해답을 마지막으로 한 편의 驛站詩에서 찾아보자.

「桂源鋪」[58]

萬山不許一溪奔, 많은 산은 시냇물 한 줄기가 달려감을 허락지 않고,
攔得溪聲日夜喧. 시냇물 소리 밤낮 시끄럽게 흐르도록 막고 있네.
到得前頭山脚盡, 앞산 산자락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서야,
堂堂溪水出前村. 시냇물은 당당히 앞마을 향해 나아가네.

이 시는 淳熙 7年(1180) 庚子 正月에서 같은 해 가을까지 廣東常平茶鹽使·提點刑獄로 천거되어 廣州로 부임하는 도중 지은 시로서, 자연 경물을 자연스럽게 그린 景物詩임과 동시에 양만리의 세계관을 형상화한 哲理詩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驛站인 '鋪'는 출현하는데, 시인은 작은 역참에서 머물며 바라본 자연의 모습을 平易한 언어로써 적어내고 있다.

어떤 이는 이 시가 시대의 흐름이란 것은 막을 수 없고, 조류를 위반하는 모든 행동과 조치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란을 일으킬 뿐이기에, 시냇물이 끝내 흘러가는 것처럼 그 흐름에 따라야 함을 함의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혹시 양만리는 이 시에서 하나의 인생은 마치 많은 산이 시냇물을 가로막고 있듯이 如意하지 않지만, 산자락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 시냇물이 당당히 흘러갈 길이 열리는 것처럼 스스로 수양하며 때를 기다리게 되면 자기 뜻을 펼칠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다는 것을 진정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었기에, 宦遊의 긴 여정 속에서 떠남 머무름의 공간 驛站에 잠시 이를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몸으로 확인하고 다시 깨닫기에 쉽게 가벼울 수 없었고 그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마치 공간 驛站이 그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고문헌】

<단행본>
송용준·오태석·이치수, 『宋詩史』, 도서출판 역락, 2004.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8.
[宋]陳師道 撰, 任淵 注, 『後山詩注補箋』, 中華書局, 1995.
[唐]杜 佑, 『通典』, 欽定四庫全書本.
[淸]顧祖禹, 『讀史方輿紀要』, 影印本.
[宋]樂 史, 『太平寰宇紀』, 欽定四庫全書本.

58)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卷15, 中書書局, 2007, p.756: 『讀史方輿紀要』 卷88 '江西 贛州府'에 "桂源鋪는 府 북쪽 150리에 있으며, 萬安縣 경계에 접해있다고 적혀 있다.

李德輝,『唐宋館驛與文學』, 中書書局, 2019.
[宋]李　昉,『太平廣記』, 欽定四庫全書本.
漆　俠,『中國經濟史通史·宋代經濟卷』, 經濟日報出版社, 1999.
[宋]蘇　軾, 譚新紅·蕭興國, 王林森 編,『蘇軾詞全集』匯校匯注匯評, 崇文書局, 2015.
[淸]孫詒讓 撰,『周禮正義』, 中華書局, 1999.
[元]脫　脫 等,『宋史』,『二十四史』, 中華書局, 1997.
[明]徐應秋,『玉芝堂談薈』, 欽定四庫全書本.
[宋]嚴　羽, 郭紹虞 校釋,『滄浪詩話校釋』, 人民文學出版社, 2000.
[唐]姚　合,『姚少監詩集』, 欽定四庫全書本.
[宋]楊萬里,『誠齋集』, 欽定四庫全書本.
[宋]楊萬里, 申更儒 箋校,『楊萬里集箋校』, 中書書局, 2007.
于北山 著, 于蘊生 整理,『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17.
張宏生,『江湖詩派研究』, 中華書局, 1995.
[宋]周　密,『武林舊事』, 武林掌故叢編本.
周裕鍇,『宋代詩學通論』, 巴蜀書社, 1997.
[宋]朱　熹,『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2003.
Gaston Bachelard 著, 龔卓軍‥王靜慧 譯,『空間詩學』, 張老師文化出版, 2003.
Philip Kock 著, 梁永安 譯,『孤獨(Solitude: a philosophical encounter)』, 立緖文化事業有限公司, 1997.
R. Murray Schafer,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New York: Knopf, 1977.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 2011.

<논문>
이종무,「宋代 사찰시 속 공간의 상징성과 문인심리」,『中國文化研究』, 第57輯, 2022.
董立章,「略論中國資本主義萌芽于宋」,『華南師範大學學報』, 2001年 第3期, 2001.
范寧鵬,「析論楊誠齋詩中的'不寐'與'萬籟'」,『文化境界』, 第2卷 第3期, 國立政治大學外國語文學院跨文化研究中心, 2017.
黃明建,「唐代館驛制度及分布特點探析」,『四川文理學院報』, 第31卷 第6期, 2021.
謝仁敏·劉　慧,「唐代館驛場域與詩歌的生産及傳播」,『雲南師範大學學報』, 第50卷 第2期, 201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南宋, 楊萬里, 驛站詩, 空間, 心理, 離開, 逗留
	영문	Southern Song Dynasty, Yang Wanli, Station poetry, Space, Psychology, Leave, Stay

A Study on the Station Poetry of Yang Wanli(楊萬里)
: Focusing on 'Space' and 'Psychology'

Lee Jong-M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on Poetry Works(驛站詩) among poet Yan Wanli(楊萬里)'s poetry works as a research subject, and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the 'Space(空間)' of Living and Staying, and the literary Psychology derived from i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Yan Wanli's Station Poetry work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Yan Wanli's Station Poetry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appearance of 'Nature(自然)' and inside and outside the Station(驛站)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poetic language or Poetry materials, which is consistent with his view that 'Nature' is the source of creation.

Second, Yan Wanli's Station Poetry establishes a relationship with Nature in stages and actively implements it in the creative process.

Third, Yan Wanli's Station Poetry fully shows the aesthetic effects created by the 'Space' Station. He combines numerous natural elements that can be captured in the space of Station Poetry with humanities, and even the poet's psychology is projected through this space. In addition, the aesthetic effects created by Station Space are prominent in the operation of various and lively Senses in the Poem.

Fourth, the poet's psychology depicted in Yan Wanli's Station Poetry has a heavy and dark color, reflecting relatively many emotions of anxiety, depression, and lamentation, unlike his other Official Travel Poetry works. In particular, in some Station Poetry works, the psychology of a poet 'Solitude' stands out, which is judged to be another poetic effect created by a special space called Station.

저 자	이종무 / 李鍾武 / Lee Jong-Mu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5.	게재확정일	2023.09.13.